

제주방언 문법 형태의 세대별 변화 연구*

김보향(제주대)

〈목 차〉

- | | |
|-------------|------------------|
| 1. 서론 | 3. 조사의 세대별 사용 양상 |
| 2. 제주방언의 조사 | 4. 결론 |

1. 서론

이 연구는 제주방언의 조사(助詞)를 중심으로 문법 형태의 세대별 변화 양상을, 방언의 표준어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언어의 접촉은 언어 공동체의 언어 체계에 변화를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언어가 접촉할 경우 상호 영향을 받아 언어적 요소가 융합되기도 하고 어느 한쪽이 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지역 방언들이 사회 변화의 급류를 타고 표준어로 단일화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제주방언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 (NRF-2015S1A5B5A01013577), 2016 영주어문학회(2016. 12. 2.)에서 발표했던 글을 수정·보완하였다.

역시 빠르게 표준어화하고 있다. 제주방언의 표준어화는 음운이나 어휘뿐만 아니라 문법 형태에서도 눈에 띄게 나타난다. 조사의 경우 노년층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부사격 조사 '-더레', '-ㄴ라' 등은 청년층에서는 '-에, -로', '-한테, -에게'로 대체되어 나타난다. 또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제주방언의 연결어미 '-난'은 청년층에서는 표준어형인 '-니까'로 대체되어 나타나며, 의문형 종결어미 '-심'은 노년층에서조차 거의 들을 수 없다. 제주방언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문법 형태소들이 표준어의 영향으로 그 세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방언의 표준어화 속도는 일률적이지 않다. 다른 요소들보다 변화가 빨리 진행되는 항목이 있고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방언의 표준어화에 초점을 맞추어, 제주방언 문법 형태소 중 표준어와 형태를 달리하는 조사(助詞)를 중심으로 방언형과 표준어형의 사용 정도가 세대별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제주방언 조사의 표준어화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제주방언의 조사

국어의 조사는 주로 체언이나 부사 등의 자립 형태소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말한다. 학교 문법에서는 크게 격조사 보조사, 그리고 접속조사로 나누고 있다. 격조사는 명사로 하여금 문장 속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보조사는 앞말에 뜻을 더해 주거나 문장 끝에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 그 자체가 특수한 의미를 지니면서 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제주방언의 조사는 이승녕(1957/1978), 박용후(1960, 1988), 강근보(1978), 강영봉(1981), 정운택(1983), 강정희(1984), 현평효(1985), 허기추(1988) 등에서 대략적인 목록이 정리되었다.

다른 방언에서 조사는 표준어와 음운론적인 면에서 다양한 변이형들이 보일 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제주방언의 경우는 형태론적인 면에서 다른 방언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들이 많다. 제주방언 조사에 대한 연구는 다른 지역어와는 다른 형태를 갖는 조사를 중심으로, 그 형태적·통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우선, 이승녕(1957/1978)은 제주방언의 특이한 격조사로 속격 '-네', 절대격 '-랑', 공동격 '-영', 비교격 '-왕/-광', 처소격 '-레/-더레'를 들어 형태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강근보(1978)는 제주방언의 격형태를 '주격, 여격, 대격, 속격, 처소격, 향격, 공동격'으로 나누고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격조사의 형태와 기능을 분석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였다.¹⁾ 강영봉(1981)에서는 '-ㄱ지, -부떠, -ㄱ장, -ㄱ치, -ㄱ뜬, -채, -만정, -꺏아, -만씩, -신디, -안티, -아피, -ㄱ라, -아올라, -아자, -만이, -드레, -디' 등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용언적 후치사로 '-아올라, -ㄱ라, -아자, -신디, -만이', 체언적 후치사로 '-디, -안티, -아피' 등, 특이한 어형을 택하여 그 형성과 용법, 통사 관계를 논의하였다. 강정희(1984, 1988)에서는 제주방언 조사의 형태는 물론 통사·의미론적인 특징까지도 연구되었다. 허기추(1988)는 격조사의 형태를 분류하여²⁾ 실현 환경, 통사적 특성 등을 표준어와 비교하고 있다.

보조사에 대한 연구 또한 특이한 형태를 갖는 몇몇 어휘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문순덕(2003)은 '-라근에/라근, -(이)랑, -ㄱ치/ㄱ찌, -쳐록/쳐록/쳐름/ㄱ추록, -ㄱ장/ㄱ지, -알파/아올라, -냥, -만이, -바꺏/바꺏, -(이)랑)마랑, -사' 등 표준어와 형태를 달리하는 보조사를 중심으로 그 의미·통사 기능에서 표준어와 차이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1) 속격(-의, -네, -이, -스1)), 처소격(-에, -이, -에서, -드레), 향격(-레, -르레, -드레), 공동격(-이영) → 속격(-의, -네, -이, -스), 처소격(-에, -이, -에서, -드레), 향격(-레, -르레, -드레), 공동격(-이영)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2) 임자자리(-이/가), 기움자리(-이/가), 부림자리(-르/을), 매김자리(-에/이/스), 어찌 자리(처소: -에/에/의/디, 신디/안티/아피, 방향: -드레/레, 보고: -ㄱ라, 방편: -오르/로, 비교: -보담/ㄱ치/만이/쳐록), 부름자리(-아/야/양)로 분류하였다.

한편 이기갑(2003:27-177)에서는 한국의 방언권을 서북, 중부, 서남, 동북, 동남, 제주의 여섯 구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방언권에서 실현되는 조사를 격조사, 보조사, 문장 뒤에 붙는 조사 등으로 나누어 그 형태와 기능을 각 방언권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한국어 방언권별 조사 목록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조사 목록에서 제주방언의 조사 체계는 현대 국어의 조사 체계와 비교하면 분류 방법에 차이가 있다. 제주방언에서는 ‘주격, 목적격’, ‘처소격, 여격, 조격’ 등 각 조사의 문법적인 측면과 의미적 측면을 혼용하여 조사를 분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표준어에서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등 통사적인 관점에서 조사를 분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주방언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주격, 대격, 여격, 향격, 처소격 등 형태별로 격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방언 연구는 특정 언어의 하위 언어로서만이 아니라 각 방언이 독자적으로 탐구될 가치가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각 방언권의 문법 체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문법 범주와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론은 한 언어에서 분화된 각 방언권에 대한 제 현상을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어의 문법 체계를 세우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각 지역 방언에서 조사의 차이는 음운 변화에 의한 것이거나 문법화로 생겨난 변이 형태들이 많다. 이런 방언에 나타나는 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국어의 조사 체계를 재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제주방언 조사를 표준 국어 문법에 맞추어 정리하였다.³⁾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제주방언 조사

구분		표준어	제주방언
격조사	주격	-이/가	-이/가

3) 조사의 구분은 남기심·고영근(2009)에 따른다.

	서술격	-이다	-인다	
	목적격	-을/를	-을/를	
	보격	-이/가	-이/가	
	관형격	-의	-이, -네	
	부사격	처소	-에	-에/이/디/레
		방향	-로, -에	-더레/레
		도구	-(으)로	-(으)로
		여격	-에/에게, -한테, -더러	-신디, -ㄱ라, -안티, -아피
		공동	-와/과, -(이)랑	-광, -(이)영
비교	-보다	-보다/보담		
호격	-아/야	-아/야		
보조사		-은/는	-은/는, -(이)랑/(이)라근에	
		-도	-도	
		-만	-만	
		-같이	-ㄱ치/ㄱ찌	
		-처럼	-추록/츄록/츄룩	
		-부터	-부떠/부뜸	
		-까지	-ㄱ장/ㄱ지/꺼지	
		-마저, -까지	-아올라	
		-대로	-냥으로	
		-만큼	-만이	
		-밖에	-베끼	
		-(이)야	-(이)사	
	-(이)라도	-(이)라도		
접속조사	-하고, -와/과, -(이)며	-헝곡, -광, -(이)영		

방언 화자들을 구술 조사해 보면, 조사(助詞)에도 많은 이형태들이 나타난다. <표 1>에 제시한 제주방언 조사는 방언 화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이형태들을

전부 반영하지 못하였다. 표준어의 경우, 조사의 형태 및 문법 기능이 대부분 분명하게 나타나는 데 비해, 방언은 형태조차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방언 화자의 구술 조사를 통해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조사의 세대별 사용 양상

제주방언 조사의 세대별 사용 양상은 <표 1>의 제주방언 조사 목록에서 표준어와 형태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다음의 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2> 조사 항목

구 분		조사 항목
격조사	관형격	-네
	부사격	-이/디/레 -더레/레 -신디, -안티, -ㄱ라 -광, -(이)영
보조사		-(이)랑/(이)라근에 -추록/처록/츄록 -ㄱ장/꺼지 -아올라 -냥으로 -베끼

제주방언은 어휘에서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문법 형태소인 경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에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 전역을 하나의 방언구역으로

하여 조사하였다.⁴⁾ 조사 방법은 질문지를 이용하여 직접 면접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질문지는 우선 표준어와 다른 형태를 갖는 방언형을 중심으로 조사 항목을 정하여 작성하였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의 방언형과 표준어형을 제시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질문지에 주어진 항목 외에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방언의 이형태나 개신형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란을 두어 조사하며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진행 중인 언어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적 차이에 따른 표준어화의 진행 정도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제보자는 ‘20대’에서 ‘70대 이상’으로 하여 10년 단위로 구분하고, 여기에서 20대·30대는 청년층, 40·50대는 중년층, 60대·70대 이상은 노년층으로 보았다. 각 연령별 제보자 수는 다음과 같다.

<표 3> 연령별, 성별 제보자 수

연령대	남	여	합계
20대	10	12	22
30대	10	11	21
40대	8	10	18
50대	12	14	26
60대	10	7	17
70대 이상	7	13	20
합계	56	68	124

4) 이 방언 화자 70, 80대를 대상으로 한 방언 조사에서 문법 형태소의 지역차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종결 형태에서 종결어미에 첨사 ‘-게’가 결합될 때, 제주시 서부 지역에서는 ‘-기게’ 형태가 자주 나타났다.

- 이디 흥뽀م 졸락허게 만들영 것수다게. (서귀포시 안덕면, 양기옥)
- 쉼도 타고 몰도 타고 옛날에사게. (서귀포시 토평동, 조풍자)
- 건디 이 신창은 안 들어와봤주기게. (제주시 한경면, 진인중)
- 게른 우리 그 몰도 길고 다끄곡 헛주기게. (제주시 한경면, 이순녀)

자료 조사 방법은 제보자들을 직접 면담하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사용하는 조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우터레, 우/위로 데끼라.’를 들려주고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방언 어휘의 사용 정도는 연령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0대, 30대의 경우 ‘데끼라⁵⁾’ 등 질문지에 주어진 어휘를 생소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조사에 결합하는 선행어 등은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의 연령에 따라 변화를 주며 제시하여 제보자가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조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렇게 조사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spss)을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3.1. ‘-이, -디, -레’와 ‘-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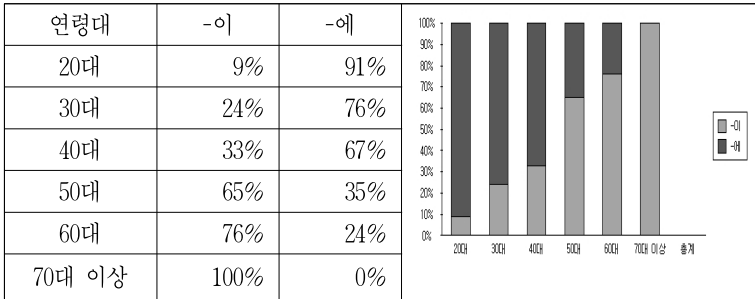
제주방언의 부사격 조사 중 처소를 나타내는 조사로 ‘-이, -디, -레, -에’가 있다. 이들 조사는 선행 명사에 따라 선택에 제약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디’는 선행 명사의 말음이,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ㅌ’ 발음을 가졌던 일부 체언⁶⁾에 결합하는 특징이 있다. ‘-레’는 ‘흐르(하루), ㄱ루(가루), 마리(마루), 시리(시루)’(이승녕, 1978:36~40) 등에서와 같이 표준어의 ‘우’(또는 ‘오’) 발음 어간에 대응하는 일부 체언 어간에 결합한다.⁷⁾ 이들 조사의 사용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선행 명사를 달리하여 조사하였는데, 세대별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데끼(投)-라(명령의 종결어미)’로 분석된다.

6) ‘끗(끝), 못(물), 밧(밭), 솟(술), 베곗(바깥)’ 등이 있다.

7) 정승철(1998: 957)은 ‘-디’와 ‘-레’의 초성 ‘ㄷ’과 ‘ㄹ’을 선행하는 어간의 발음으로 보았다. 이들 ‘ㄷ’과 ‘ㄹ’이 선행 어간의 발음이기 때문에 제주방언의 처소격 조사 ‘-에’와 ‘-레’는 표준어의 처소격 ‘-에’와 관계가 있고, ‘-이’와 ‘-디’는 표준어의 ‘-의(/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표 4>



<표 5>

연령대	-디	-에
20대	5%	95%
30대	15%	85%
40대	33%	67%
50대	73%	27%
60대	94%	6%
70대 이상	100%	0%

<표 6>

연령대	-래	-에
20대	0%	100%
30대	0%	100%
40대	6%	94%
50대	12%	88%
60대	41%	53%
70대 이상	82%	18%

‘집이/집에 잇수다.(집에 있어요.)’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 ‘-에’의 사용은 <표 4>를 보면 50대를 경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50대 이후 세대에서는 방언형인 ‘-이’를 사용한다는 답변이 50대 65%, 60대 76%, 70대 100%로 우세하지만 20대~40대에서는, 각각 9%, 24%, 33%로 실현되었다. 20~40대에서는 ‘-이’보다 ‘-에’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청년층으로 올수록 표준어형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5>의 ‘-디’와 ‘-에’에서도 마찬가지로, 50대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의 조사 ‘-이’, ‘-디’의 사용 비율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디’를 사용한다는 답변이 50대 73%, 60대 94%, 70대에서는 100%로 ‘-이’를 사용한다는 답변보다 높게 나타났다. 20~40대에서는 ‘-디’보다 ‘-에’를 사용한다는 답변이 많았는데, 20대 95%, 30대 85%, 40대에서는

67%가 '-에'를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50대 이후 세대에서는 방언형인 '-이', '-디'를 사용하는 비율이 60~70% 이상으로 나타나지만 20~40대에서는 5~33%에 그치고 있다.

'-디'와 '-에'의 사용에 관한 질문은 선행 명사를 '숯(술), 밭(밭)'으로 하여 '숯디', '술에'와 '밭디', '밭에'를 제시하였는데, '술'에 처소를 나타내는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 방언형 명사인 '숯'에 표준어형 조사 '-에'가 결합하여 '숯에[소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행 명사와 조사의 결합에서 방언형과 표준어형이 교차하여 실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레'는 '-이'나 '-디'에 비해 사용하는 연령대가 높게 나타났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대 이후에서는 80% 이상이 사용하지만 60대 41%, 50대에서는 12%에 그치고 있다. 또한 20, 30대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나 '-디'가 40대에도 30%, 50대에는 60~70%나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사용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 명사에 따라 처소격 조사가 선택되는 방언의 특징도 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와 '-디'가 청년층, 중년층에서도 일부 사용되는 반면 '-레'는 청년층, 중년층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60대 이후의 노년층에서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사 '-디'는 통시적으로 발음이 'ㅎ'이었던 일부 어휘 뒤에서는 '-티'로 실현된다(강정희, 1980: 76). 이러한 현상이 유지되는지 알아보고자 50대 이상 제보자를 대상으로 '-티'의 실현 여부를 확인하였다.

<표 7>

연령대	-티 (우티)	-이 (우이)	-에 (우/위에)
50대	17%	29%	54%
60대	35%	41%	24%
70대 이상	35%	39%	26%

‘위(上)’는 중세국어에서 ‘웅, 우’로 ‘ㅎ’말음을 갖는다. ‘위(上)’에 처소격 조사가 결합된 형태를 살펴보면 <표 7>에서와 같이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각각 35%, 50대에서 17%가 ‘우티’로 실현되고 있다. 방언형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티’를 사용한다는 경우보다 ‘-이’를 사용한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50대에서는 ‘-티’, ‘-이’를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표준어형인 ‘-에’를 사용하는 경우가 54%로 많았다.⁸⁾ 앞서 살펴본 ‘-이’, ‘-디’와 비교해 보았을 때 표준어형인 ‘-에’를 사용한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게 실현된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이’와 ‘-에’, ‘-디’와 ‘-에’의 선택에서 ‘-에’를 사용한다는 답변이 0%로 전혀 없었으나 여기에서는 26%가 ‘-에’를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3.2 ‘-더레’/‘-레’와 ‘-(으)로, -에’

방향을 나타내는 제주방언 조사에는 ‘-더레, -레’가 있다. ‘-더레’는 선행 명사가 ‘르’를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결합하고 ‘-레’는 모음 뒤에 결합한다. ‘ㅎ’말음을 가졌던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더레’가 결합하고 ‘르’로 끝나거나 일부 모음 뒤에서는 ‘-러레’가 실현되는 특징을 갖는다(정승철, 1998: 959).

<표 8>

연령대	-더레	-(으)로	-에
20대	0%	34%	66%
30대	2%	40%	55%
40대	24%	27%	48%
50대	38%	8%	49%
60대	81%	4%	15%
70대 이상	76%	7%	14%

8) ‘-에’를 사용하더라도 선행 명사는 ‘위’의 방언형인 ‘우’와 결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에’를 사용한다는 50대 54%, 60대 24%, 70대 26% 중, ‘우에’가 각각 46%, 18%, 23%였다.

<표 9>

연령대	-레	-(으)로	-에
20대	0%	45%	55%
30대	0%	38%	62%
40대	0%	49%	50%
50대	17%	41%	42%
60대	48%	29%	23%
70대 이상	83%	5%	12%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대, 70대 이상에서는 ‘-더레’를 사용하는 비율이 각각 81%, 76%로 나타났다. 50대 38%, 40대 24%가 사용하고 있지만 20, 30대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표 9>에서 ‘-레’의 사용 비율을 보면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더레’보다 낮게 실현되고 있다. 70대 이상에서는 80%, 60대 48%가 ‘-레’를 사용하고 있지만 50대에서는 7%에 그치고 있고 그 이하 세대에서는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다. 한편 표준어형은 ‘-(으)로’보다는 ‘-에’를 사용한다는 답변이 대체로 많았다.

<표 10>

연령대	우터레	우(이)로	위로
20대	5%	9%	86%
30대	15%	5%	80%
40대	28%	6%	67%
50대	56%	8%	36%
60대	94%	0%	6%
70대 이상	90%	5%	5%

9) ‘-더레’의 경우 ‘-테레, -드레’를 사용한다는 경우가 각각 1명씩 있었는데, 모두 ‘-더레’에 포함하였다. 30대, 50대, 70대에서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는데 이는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같은 연령대 %의 합이 100%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이’ 등 다른 조사로

통시적으로 ‘ㅎ’ 발음을 갖는 일부 명사 뒤에 결합하는 ‘-터레’는 <표 10>에서와 같이 50대 이전 세대에서는, 20대 5%, 30대 15%, 40대 28%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50대 이후에서는, 50대 56%, 60대 94%, 70대 이상 90%가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터레’가 ‘-더레’보다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표 8>과 <표 10>을 비교해 보면 ‘-터레’의 경우가 ‘-더레’보다 각 연령대에서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표 7>의 ‘-티’보다 훨씬 높게 실현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우터레’를 ‘웅, 우’와 ‘-터레’가 결합된 형태라기보다 하나의 형태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표 11>

연령대	알러레	알더레	아래레	아래로
50대	6%	71%	12%	12%
60대	47%	53%	0%	0%
70대 이상	70%	30%	0%	0%

한편 ‘-더레’는 ‘ㄹ’로 끝나거나 모음으로 끝나는 일부 선행 명사 뒤에서는 ‘-러레’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방언형인 ‘알’ 뒤에 ‘-더레’가 결합할 경우 70대 이상에서는 70%가 ‘알러레’로 말한다고 답하였지만, 50대에서 ‘알러레’를 사용한다는 답변이 6%에 그쳤다. 선행어로 ‘ㄹ’로 끝나는 명사가 오더라도 ‘-러레’와 ‘-더레’의 선택에 구분이 없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50대에서는 표준어형 선행 명사 ‘아래’에 ‘-레’를 붙여 ‘아래레’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3.3. ‘-신디, -안티, -ㄱ라’와 ‘-한테, -에게’

제주방언 ‘-신디, -안티, -ㄱ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결합하는 여격 조사로 표준어어의 ‘-에게, -한테’¹⁰⁾에 해당한다.

답한 것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12>

연령대	-신디	-안티	-안테	-한테	-에게
20대	14%	14%	9%	55%	0%
30대	52%	10%	14%	24%	0%
40대	44%	22%	28%	0%	6%
50대	54%	31%	12%	0%	4%
60대	56%	33%	6%	0%	0%
70대 이상	41%	55%	0%	0%	0%

<표 12>를 보면, 조사 '-신디', '-안티'의 경우는 30, 40대도 일상생활에서 60%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20대를 제외한 전 세대에서 방언형인 '-신디', '-안티'가 우세하게 사용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방언형을 사용하는 경우 '-신디'와 '-안티'는 어느 쪽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 선택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¹¹⁾ <표 12>에 제시된 것 외에 '-한티', '-아피', '-아페'를 사용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20, 30대에서 '-한티', 60, 70대에서는 '-아피, -아페'가 실현되었다. '-아피', '-아페'는 청년층이나 중년층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70대 이상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ㄱ라'는 '굳다(曰)' 동사에서 문법화한 조사로 '말하다'의 의미를 갖는 동사와 같이 쓰이는 특징을 갖는다(강근보 1978:71, 강영봉 1981:11, 강정희 1988:83). 즉, '-ㄱ라'는 '삼춘ㄱ라 곱앗저', '삼춘ㄱ라 말헛저'처럼 '굳다' 또는 '말허다'와 같이 쓰인다. 뒤에 오는 동사와 조사 '-ㄱ라'의 문법적으로 호응 관계가 일상 언어생활에서 유지되는지 확인해 보았다.

10) 여격을 나타내는 조사 '-에게'가 문어적인 표현에 쓰인다면 '-한테'는 구어적으로 쓰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테' 사용한다는 답변이 많았고 '-에게'를 사용한다는 답변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11)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 둘 다 사용한다는 경우 한 쪽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13>

연령대	-ㄴ라	-신디	-안티	-안테	-한테	-에게
20대	0%	14%	14%	18%	41%	9%
30대	0%	52%	10%	10%	24%	0%
40대	0%	61%	22%	11%	0%	6%
50대	4%	46%	38%	8%	0%	4%
60대	0%	59%	35%	6%	0%	0%
70대 이상	35%	50%	5%	0%	0%	0%

‘글다’, ‘말허다’의 동사가 뒤에 오는 문장에서 조사 ‘-ㄴ라’가 선택되는 경우는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대 이상의 방언 화자에게서 35% 나타나고 있다. 50대에서 4%로 나타나고 있지만 나머지 세대에서는 ‘말허다’ 이외의 대상을 필요로 하는 동사가 뒤에 왔을 때(<표 12>)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로 보아 ‘글다’, ‘말허다’의 동사와 조사 선택의 제약은 70대 이상에서만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4. ‘-광, -(이)영’과 ‘-와/과, -(이)랑’

제주방언의 공동격 조사로 ‘-광, -(이)영’이 있다.¹²⁾ ‘-광’과 ‘-(이)영’ 또한 표준어나 다른 지역 방언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는 조사다. ‘-광’이 음운론적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로 실현되는 반면 ‘-(이)영’은 선행 명사 말음의 음운적 자질에 따라 ‘-영’과 ‘-이영’으로 실현된다. 한 문장에 ‘-(이)영’과 ‘-광’이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 선행 연구에서 ‘-(이)영’과 ‘-광’은 큰 의미상의 차이나¹³⁾ 문법적 제약은 보이지 않는다.

12) ‘-광, -(이)영’은 접속조사로도 쓰인다.

13) 정승철(1998:960)은 ‘-광’은 ‘-(이)영’보다 주어를 강하게 견인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표 14>

연령대	-광	-(이)영	-와/과	-(이)랑
20대	0%	44%	21%	35%
30대	0%	76%	0%	24%
40대	0%	89%	0%	11%
50대	6%	90%	0%	4%
60대	18%	82%	0%	0%
70대 이상	45%	55%	0%	0%

<표 14>를 보면 ‘-(이)영’은 20대에서도 44%, 30대에서 76%가 사용하고 있다. 40~60대에서는 80~90%로 중년층, 노년층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사로, 청년층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광’은 20~40대에서는 사용한다는 답변이 전혀 없고, 50대 6%, 60대 18%, 70대 이상에서 45%가 사용하는 것으로 답하였다. ‘-(이)영’이 30, 40대에서 높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광’은 일부 노년층에서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과 ‘-(이)영’이 사용 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 흥미롭다. 표준어형의 경우, ‘-와/과’보다는 구어적 표현인 ‘-(이)랑’이 많이 선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 ‘-네’와 ‘-의’

제주방언 관형격 조사에는 ‘-네’가 있다. ‘-네’는 ‘느(너)네 집, 가네 집, 야네 집’에서처럼 ‘느, 가이, 야이’의 1인칭을 제외한 인칭대명사나 ‘순덕이네 집, 이장(里長)네 집, 삼촌네 집’처럼 인명, 직명, 친족명을 선행어로, 소유의 의미 자질을 갖는 체언이 뒤에 결합한다.

<표 15>

연령대	-네	-의	조사 생략
20대	88%	2%	9%
30대	93%	0%	7%
40대	94%	0%	6%
50대	98%	2%	0%
60대	100%	0%	0%
70대 이상	100%	0%	0%

조사 ‘-네’는 60, 70대 이상에서는 100%, 30대~50대에서는 90% 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대도 88%가 ‘-네’를 사용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젊은 세대들도 ‘-네’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가 이처럼 청년층에서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네’의 쓰임이 제주방언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2009)의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친족 호칭이나 사람 이름 뒤에 붙어, 그 집안이나 가족 전체를 이르는 뜻을 더하는 말. 흔히 관형 구성으로 쓰인다.”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제주방언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제주방언에서는 ‘-네’가 복수의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에도 소유의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에 사용된다. 청년층에서까지 ‘-네’가 두루 사용되는 것은 표준어 접미사 ‘-네’의 기능이 비슷하기¹⁴⁾ 때문으로 보인다.¹⁵⁾

한편 2인칭 대명사에 ‘-네’가 결합하는 경우, 선택되는 대명사에서도 세대별 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대에서는 모든 제보자가 ‘너’로 선택하는 반면, 70대 이상에서 95%가 ‘느’로 선택하였다.¹⁶⁾

14) 강희숙(2015)에서는 전남방언에서의 ‘-네’의 의미 기능을 살펴면서, 국어의 접미사 ‘-네’를 전면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국어 방언들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의미 기능을 살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5) 제주방언에서 ‘-네’의 의미 기능과 제주방언 화자들이 표준어의 접미사 ‘-네’와 어떻게 달리 인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문을 가지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

3.6. '-추록'과 '-처럼'

비교의 의미를 갖는 보조사 '-처럼'은 제주방언에서는 '-추록, -처록, -츄록'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표 16>

연령대	-추록	-처록	-츄록	그 외	-처럼
20대	55%	0%	0%	0%	45%
30대	57%	0%	0%	0%	43%
40대	50%	0%	0%	0%	50%
50대	47%	6%	8%	0%	39%
60대	37%	11%	17%	9%	26%
70대 이상	43%	24%	11%	11%	11%

<표 16>에서 보면, '-추록'은 20~40대에서도 50% 넘게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추록'의 사용 비율에서는 20~40대가 50대 이후 세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50대 이후에서는 방언형이 '-추록'뿐만 아니라 '-처록', '-츄록' 등의 형태로도 나타나지만 40대 이하 세대에서는 '-추록' 하나로만 실현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16>에 제시된 '-추록', '-처록', '-츄록' 외에, 60대 이후에서는 '-철록', '-처름'의 형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노년층, 중년층에서는 다양한 방언형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년층

16) 관형격 조사 '-네'와 결합하는 2인칭 대명사

연령대	느네	너네
20대	0%	100%
30대	5%	95%
40대	17%	83%
50대	77%	23%
60대	82%	18%
70대 이상	95%	5%

으로 내려올수록 방언형이 단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7. '-ㄱ장, -꺼지'와 '-까지'

'-ㄱ장'은 범위의 끝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표준어 '-까지'에 대응한다. 중세국어 'ㄱ장(極盡)'의 변화(문순덕, 2003:81)형으로 제주방언에서는 '-ㄱ지, -꺼지, -꺼장' 등 다양한 형태로 실현된다.

<표 17>

연령대	-ㄱ장	-ㄱ지	-꺼장	-꺼지	-까지
20대	0%	0%	0%	2%	98%
30대	0%	0%	0%	5%	95%
40대	0%	0%	11%	12%	78%
50대	0%	4%	6%	40%	50%
60대	6%	12%	18%	44%	21%
70대 이상	25%	0%	30%	45%	0%

<표 17>을 보면 20, 30대에서는 '-꺼지'를 사용한다고 답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95% 이상이 '-까지'를 사용하고 있다. 40, 50대에서도 '-까지'를 사용한다는 답변이 78%, 50%로 우세하다. 한편 60대에서는 '-꺼지'를 사용한다는 답변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방언형이 경우 '-꺼지' 외에 '-ㄱ장', '-ㄱ지', '-꺼장' 등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70대 이상에서는 '-까지'를 사용한다는 답변은 전혀 없고 '-꺼지', '-꺼장', '-ㄱ장'을 사용한다는 답변이었다. 여기서도 중년층, 노년층에서는 방언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면 청년층에서는 방언형이 단순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8. '-냥으로'와 '-대로'

보조사 '-냥으로'는 표준어 '-대로'에 대응한다. 주로 인칭대명사와 결합하여 '나냥으로, 느냥으로, 지냥으로, 이녀냥으로' 등의 형태로 쓰이는데, 행동 주체의 의지를 더해 주며, 누구의 간섭 없이 스스로 행동함을 의미한다.

<표 18>

연령대	-냥으로	-대로
20대	18%	82%
30대	38%	62%
40대	31%	69%
50대	40%	60%
60대	65%	35%
70대 이상	88%	13%

'나냥으로/나대로', '지(자기)냥으로/자기대로'의 질문에,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냥으로'를 20대에서는 18%, 30~50대에서 30~40%, 60대에서 56%, 70대 이상에서는 88%가 사용하고 있다. '-냥으로'는 60대를 경계로 사용 비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냥으로'에 선행하는 대명사도 세대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데, 70대 이후에서는 '자기(지)냥으로'를 '이녀냥으로'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20~40대에서는 '이녀냥으로'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50대, 60대에서 각각 5%, 70대 이후에선 20%가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9. '-아울라'와 '-까지'

'-아울라'는 선행 명사의 긍정적인 행동을 기대할 때 그 기대가 실현되지 않았음을 비난하는 발화(문순덕, 2003:83)로 표준어 '-마저, -조차, -까지'에

해당하는 제주방언이다. ‘-아올라’에 대한 선행 연구(강영봉:1981, 문순덕:2003)에서는 표준어의 ‘-마저, -조차’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형태’를 묻는 이번 조사에서, ‘-아올라’ 대응하는 표준어로 ‘-마저’, ‘-조차’를 사용한다는 답변은 없었고 ‘-까지’를 사용한다는 답변이었다. 방언형에 서도 ‘-아올라’와 함께 ‘-꺼지’, ‘-ㄱ장’ 등이 실현되었다. 이는 ‘-아올라’의 의미가, ‘그 위에 더함’을 의미하는 ‘-꺼지’와 의미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9>

연령대	-아올라	-꺼지 외 ¹⁷⁾	-까지
20대	0%	2%	98%
30대	0%	0%	100%
40대	3%	17%	81%
50대	8%	39%	53%
60대	39%	33%	27%
70대 이상	78%	22%	0%

<표 19>를 보면, 20, 30대에서는 ‘-아올라’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40, 50대에서도 사용한다는 답변이 3%, 8%로 거의 사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70대 이후에서 78%로 높게 나타났다. 20, 30대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조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언형을 사용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올라’보다는 ‘-까지’의 방언형인 ‘-꺼지’ 등을 사용한다는 답변이 40대에서 17%, 50대 39%로 ‘-아올라’를 사용한다는 답변보다 높게 나타났다. 60대에서는 ‘-아올라’가 39%로 ‘-꺼지’의 33% 보다 높게 나타났다. 20~40대 세대에서는 ‘-까지’를 사용한다는 답변이 98%, 100%, 81%로 대부분 표준어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꺼지’ 외에 ‘-ㄱ장, -ㄱ지, -꺼장’을 사용한다는 답변이었는데, 이 중 가장 사용 비율이 높았던 ‘-꺼지’를 대표형으로 제시하였다.

3.10. ‘-베끼’와 ‘-밖에’

‘-베끼’는 한정 의미의 의미를 갖는 보조사로 ‘-밖에’에 대응한다. 표준어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부정 표현을 동반하는 제약이 있지만, 제주방언에 부정을 표현을 동반하지 않은 구문에서도 사용된다.¹⁸⁾

<표 20>

연령대	-베끼	-밖에
20대	18%	82%
30대	26%	74%
40대	36%	64%
50대	67%	33%
60대	94%	6%
70대 이상	93%	7%

<표 20>을 보면, 50대를 기준으로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에서 표준어형과 방언형 사용이 분명히 나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40대에서는 표준어형인 ‘-밖에’를 사용한다는 답변이 각각 82%, 74%, 64%로, 표준어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50대에서 이후에서는 50대 67%, 60대 94%, 70대 이상 93%가 ‘-베끼’를 사용한다는 답변이었다.

3.11. ‘-(이)랑, -(이)라근에’와 ‘-은/는’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은/는’은 제주방언에서는 ‘-(이)라근에, -(이)랑, -은/는’의 형태로 나타난다. ‘-은(는)’이 쓰이는 점은 같으나 제주방언에서는 ‘-(이)랑’, ‘-(이)라근에’가 빈번하게 사용된다.

18) 부정을 동반하지 않는 ‘-베끼’는 표준어 ‘-뿐’에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21>

연령대	-(이)라근에	-(이)랑	-은/는	조사 생략
20대	0%	10%	68%	22%
30대	7%	29%	61%	2%
40대	12%	29%	53%	6%
50대	9%	45%	44%	2%
60대	16%	46%	27%	11%
70대 이상	24%	50%	12%	14%

<표 21>에서 그 사용 양상을 보면, 20에서는 '-은/는'을 사용한다는 답변이 68%, 조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22%이고 방언형 조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10%에 지나지 않았다. 30대, 40대에서도 표준어형을 사용한다는 답변이 우세하지만, 50대에서는 -(이)랑' 45%, '(이)라근에' 9%, '-은/는'은 44%로 방언형이 표준어형보다 조금 높게 실현되고 있다. '60대에서 '-(이)랑' 46%, '(이)라근에' 16%, 70대 이상에서는 '-(이)랑' 50% '(이)라근에' 24%로 '-(이)랑', '(이)라근에'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방언형에서는 각 연령층에서 '(이)라근에'보다는 '-(이)랑'을 많이 쓰고 있다.

한편 2인칭 대명사에 '-(이)랑', '(이)라근에'가 결합하는 경우, 60대 이후에선 대부분 '느라근에, 늘라근에', '느랑, 늘랑, 닐랑'의 형태로 나타났다.

4. 결론

이상에서 표준어와 형태를 달리하는 제주방언 조사를 중심으로 세대별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제주방언 조사의 세대별 표준어화 정도를 각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에서 <표 21>까지 살펴본 조사를 방언형과 표준어형으로 나누어 연령대별로 사용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대	방언형	표준어형
20대	27%	73%
30대	40%	60%
40대	52%	48%
50대	65%	35%
60대	86%	14%
70대 이상	95%	5%

이를 보면 70대 이상에서 거의 대부분 방언형을 사용하고 있다. 40, 50대에서도 방언형이 우세한 편이나 20대에서는 방언형을 사용하는 비율이 27%에 그치고 있다. 연령대별로 방언형(표준어형)의 사용 비율은 대체로 10~13%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다만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21%로 그 차이가 조금 높게 나타나는데, 표준어 교육의 영향 등이 컸던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사 항목별로 그 특징을 보면, 우선 청년층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언형이 있었다. '-네'는 20대에서 70대 이상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추룩'은 20, 30대에서도 50% 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영'은 20대 44%, 30대 76%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으로 내려올수록 방언형이 단순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처림'에 대응하는 제주방언은 '-추룩, -츄룩, -처룩' 등이 있다. 70대 이상에서는 '-츄룩, -처룩, -철룩, -처름', 50~60대에서는 '-츄룩, -처룩, -철룩, -처름'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20~40대에서는 '-추룩'으로 방언형이 단일화하여 실현되고 있다. 표준어 '-까지'에 대응하는 제주방언의 경우 50~70대 이상에서는 '-깁장, -깁지, -꺼장, -꺼지'의 형태로 실현되는 반면 20, 30대에서는 '-꺼지'로만 실현되고 있다.

일부 방언형은 청년층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레'와 '-ㄱ라', '-아올라', '-광'이 그 예다. '-디', '-이', '-더레(터레)', '-(이)라근에' 등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뒤에 오는 동사에 따라 조사가 선택되는 문법적 제약 또한 청년층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곧다’, ‘말허다’의 동사가 후행하는 경우 ‘-ㄴ라’가 선택되는 문법적 호응은 70대 이상에서만 다소 나타날 뿐이다. 이는 제주방언의 전통적 모습이 사라져 가는 단면을 문법 형태소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표준어와의 접촉으로 제주방언은 고유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음운이나 어휘뿐만 아니라 문법 형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각각의 요소의 변화 진행 정도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 글에서 살펴본 조사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일상생활 언어에서 ‘-난’이나 ‘-젠’, ‘-멘’ 등의 표현을 자주 접하면서 문장의 연결어미나 종결어미 등의 변화, 즉 세대별 사용 양상에도 주목해 본다.

■ 주제어: 제주방언, 문법형태소, 조사(助詞), 세대, 변화, 표준어화

<참고문헌>

- 강근보(1976), 「속격 {-ne}의 연구」, 『논문집』 8집, 제주대학, 11-27면.
- 강근보(1977), 「제주방언의 접미사 연구: 특히 '-true'를 중심으로」, 『논문집』 9, 제주대학, 11-33면.
- 강근보(1978), 「제주방언의 공용에 대하여」, 『논문집』 10, 제주대학, 55-83면.
- 강영봉(1981), 「제주도 방언의 후치사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영봉 외(2008), 「제주 지역어 생태 지수 보고서」, 국립국어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강영봉 외(2010), 「제주도민의 제주어 사용 실태 조사 보고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강인자(2004), 「제주 방언 조사 '-광'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정희(1980), 「제주방언 처격 '-디'에 관한 일고찰」, 『방언』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5-92면.
- 강정희(1988), 『제주방언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 강희숙(2015), 「접미사 '-네'의 의미 기능 고찰」, 『한국사전학』 26, 97-119면.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2009),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민족문화연구원.
- 문순덕(2003), 『제주방언 문법 연구』, 도서출판 세림.
- 문순덕·고동호·양창용(2015), 「제주말 소멸위기 실증적 진단과 대응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송상조(1991), 「제주도 방언의 접미 파생법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상조(2007),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 이기갑(2003), 『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 이승녕(1978),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이익섭(1984), 『방언학』, 민음사.

- 정운택(1983), 「제주도 방언의 격어미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국어학회.
- 정승철(1998), 「제주방언」, 『이익섭 선생 회갑 기념 논총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955-984면.
- 정승철(2010), 「방언접촉과 언어변화」, 『국어학논총』, 태학사, 369-387면.
- 허기추(1988), 「제주도 방언의 자리토씨에 관한 연구: 표준어와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현평효(1962), 『제주도 방언 연구』 제1집 자료편, 정연사.
- 현평효(1985), 『제주도 방언 연구』 논고편, 이우출판사.
- 현평효 외(2009), 『제주어사전』 개정증보, 제주특별자치도.
- 홍종립(1998), 「제주방언의 ‘ㅎ’말음 명사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19, 1-25면.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by Generations in the Form of Grammar in Jeju Dialect -Focusing on Postposition-

Kim, Bo-hy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 by generations in the form of grammar focusing on postposition in Jeju dialect.

The direction of change of tongues and the speed of change are not uniform. There are some elements that change faster than others and vice versa. In this study, it was examined of the usage pattern of each generation by focusing on postposition which is different from the standard languag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ostposition items, there are specific dialects in which younger generations use. '-(yi)young' is used by 44% of 20s and 76% of 30s. '-ne' is used routinely in all ages from 20s to up to 70s and mor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ostposition items, there are specific dialects in which younger generations use. '-ne' is used routinely in all ages from 20s to up to 70s and more. '-chuluk' is used by more than 50% of 20s and 30s, and '-(yi)young' is used by 44% of 20s and 76% of 30s.

The younger the generation is, the simpler the dialects are.

The dialect of Jeju corresponding to '-cheolum(like)' is '-chuluk', '-chalok' and '-cheolok'. In the 70s or older, it appears in various forms such as '-chalok, -cheolok -cheollok, -cheoleum', and it is same in the 50s and 60s. However, the dialect type is used as unification form '-chuluk' in 20s to 40s. The dialect of Jeju corresponding to '-ggajji(to)' in standard language is '-ggajang, -ggajji,

-ggeojang, -ggeoji' in 50s to 70s and more, but '-ggeoji' is only used in 20s and 30s.

Some dialects are not used at all in the younger generation. '-le', '-aulla' and '-gwang' are examples of it. Also, the grammatical constraints on which postposition are chosen according to the following verbs do not appear in the younger generations. If the verb of 'gadda' or 'malheoda' is followed, the grammatical response of choosing '-gala' only appears somewhat in the 70s or more.

【Key words】 : Jeju Dialect, grammatical morpheme, Postposition, Generations, Change, For standard language

김보향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nekonoie@hanmail.net

이 논문은 2017년 5월 1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6월 11일에 심사 완료되어 6월 14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